

‘메이플스토리’ 아버지… 서울 요지의 빌딩주였네

이승찬 전 넥슨 개발1실 본부장은 한국 게임 역사에 이름 남길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를 개발한 슈퍼스타급 개발자다. 10세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가지면서 컴퓨터에 입문했고 베이직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린 나이에 게임을 개발하기도 했다. 대학생 시절에는 원문에 틀어박혀 아마추어 개발자로 살면서 게임 공모전에 응모해 약 200만 원의 상금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한 그는 군문제를 해결하고자 병역 특례를 알아보았다. 그러다 넥슨을 발견하고 지원 후 1997년 입사하면서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회사에서 ‘퀴즈퀴즈(큐플레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BnB’ 등을 개발했다. 그중 ‘퀴즈퀴즈’는 이 전 본부장과 그의 절친 1명이 재미삼아 만든 간단한 퀴즈 게임인데 당시 김정주 넥슨 대표가 서비스화를 지시해 본격적으로 만들었다.



1999년 10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이 게임은 퀴즈를 풀 뒤 얻은 가상의 돈(사이버머니)을 사용해 자신의 캐릭터에 의상을 사 입히는 등 치장하는 재미를 더해 남녀노소의 인기를 모았다. 서비스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해 일명 ‘대박 게임’이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 회사가 아니었던 넥슨

은 당시 접속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서버 유지를 위한 트래픽 확대 비용이 필요했다. 이를 충당하고자 2000년 유료화로 전환했다. 유료화 후 ‘퀴즈퀴즈’의 인기는 급속히 하락했고 유료화 이전 대비 동시 접속자 수가 절반 감소했으며 유저는 70%가 이탈하며 점점 인기 게임에서 멀어져만 갔다. 이 사태로 넥슨에 마음이 떠난 이 전 대표는 병역 특례를 마친 뒤 퇴사 행로를 밟았다. 그 후 그는 게임 개발사 ‘위젯’을 설립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를 개발해 대박을 쳤다. 2003년 4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메이플스토리는 누구든 쉽게 즐길 수 있는 횡스크롤 장르를 채택했으며 버섯·달팽이·돼지 등 익숙한 몬스터 캐릭터를 사용해 게임 분위기를 밝게해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도 즐기는 인기 게임이 됐다. 높은 인기에 힘입어 넥슨은 2004년 위젯을 330억 원에 인수했고 이 전 본부장도 2005년

넥슨재팬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했다. 넥슨 게임이 된 ‘메이플스토리’는 서비스 시작 3년 만에 회원 수 1400만 명, 동시 접속자 수 20만 명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호평이 해외로 이어져 일본의 최대 게임 회사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 전용 게임 ‘메이플스토리DS’를 비롯해 모바일 게임 ‘메이플스토리M’ 등 다양한 플랫폼에 이식되기도 했다. 이 전 본부장은 넥슨에 오래 머물지 않고 2006년 또 다른 게임 개발업체 시메트릭스페이스를 설립했다. 시메트릭스페이스가 개발한 횡스크롤 MMORPG 게임 ‘텐비’는 네오위즈게임즈를 통해 서비스됐다. 출시 초기에는 인기몰이했지만 추가 콘텐츠 부족 등 문제점을 노출하며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성공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데는 실패했다. 넥슨은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위젯에 이어 시메트릭스페이스까지 인수하며 이 전



이승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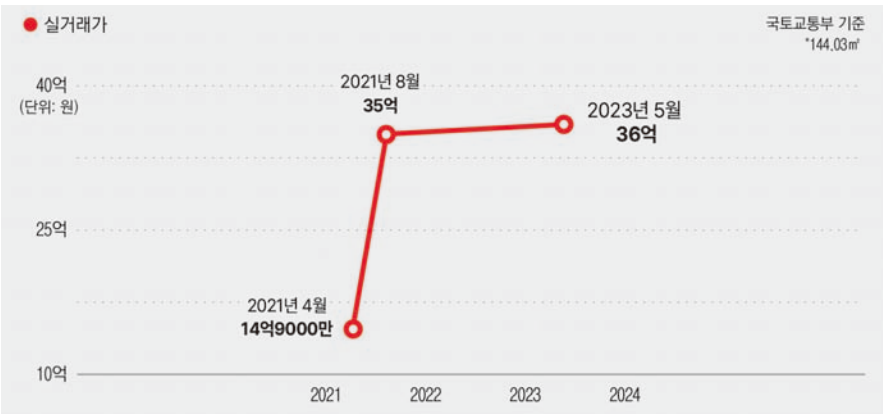
전 넥슨 개발1실 본부장
전 위젯 대표

본부장을 2009년 넥슨 개발1실 책임자로 임명했다. 당시 개발1실은 ‘메이플스토리DS’(2010년 출시), ‘메이플스토리2’(2015년 출시) 등 넥슨의 다양한 신작 게임을 총괄 개발하는 부서였다. 게임 업계에서 여러 발자취를 남긴 이 전 본부장이 빌딩주로 알려져 화제다. 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빌딩(사진) 한 동을 건물과 토지를 합쳐 2019년 4월 127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빌딩은 대지면적 289.2㎡(약 8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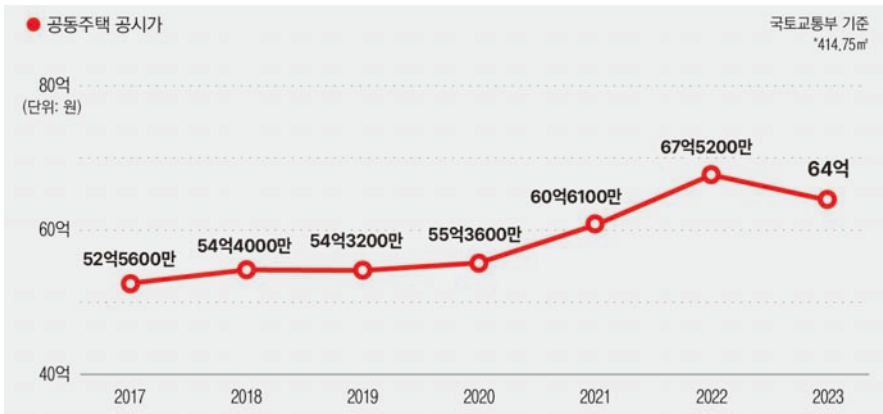
평)·899.43㎡(약 272.07평) 규모로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이뤄졌다. 1층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이 입점했으며 2층부터 4층까지는 업무시설(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지근 거리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빌딩이 지난해 220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빌딩은 특성상 건물 상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의 시세를 보인다. 이 전 본부장 소유 빌딩의 가치는 100억 원대 후반~200억 원대 초반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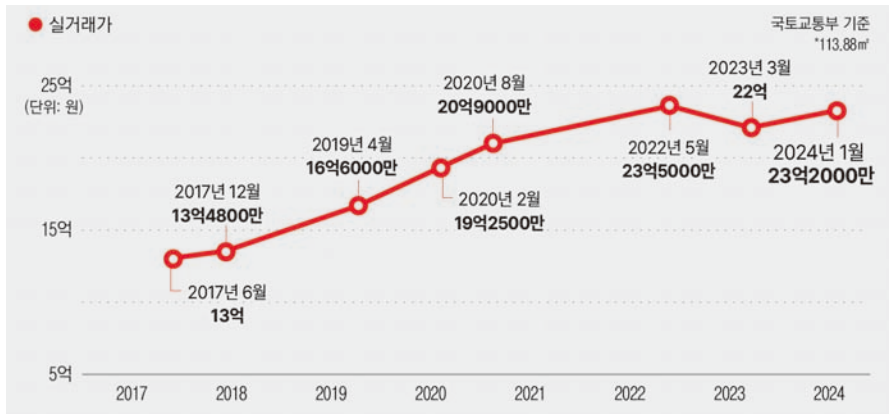
래미안리더스원



트라움하우스5차



서초고대e편한세상



김창락 현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교교수 김창락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는 서울대 핵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고준위폐기물 처분 전공으로 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4년부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을 지낸 그는 현재 KINGS 원자력산업학과 교수 겸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인기 2년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안에 대한 기술·정책·경제·정책적 측면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2003년 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아 발족한 학회다. 올해 1



월 원전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임돼 “전문 분야의 다양한 노하우와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전특위가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원전특위와 긴밀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올산 원전 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원전 피해가 없는 안전한 올산을 위해 함께 발맞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원 현SK그룹수석부회장겸SK온대표이사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겸 SK온 대표이사는 고(故) 최종현 SK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다. 신일고와 미국 브라운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석사,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SKC 사업기획실장 겸 해외사업담당·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기업이 첨단 화학소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공헌했다. SK텔레콤 전략지원본부장 부사장, SK E&S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거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환경 혐의로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6년 7월 가석방 출소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이 풀린 2021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문기업인 SK온 대표로 경영에 복귀했다. 올해 2월 설 특별사면으로 복권에 경영활동에 탄력이 붙었다.



유옥희 전경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유옥희 전 경기도 안산교육청 교육장은 인천교대의 전신인 인천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 교사·교감·교장을 거쳐 경기도교육청 장학관·평택교육장·안산교육장 등 40여 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했다. 2016년 경기도 유일 홍익점 여성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그는 2010년 6.2지방선거 경기도교육의원(제4선거구 부천·안산·시흥)에 출마해 “안산·시흥·부천교육은 물론 경기 교육이 대한민국의 중심, 현대교육사에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새로운 학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교육의원 후보로 나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옥희와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 프로



젝트’를 제시하며 교육비리 추방 및 교육불신 해소로 투명한 학교 만들기·수준별 맞춤형 교육 확대로 학부모 교육 비용 부담 줄이기·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학생들의 수월성과 다양성 신장·안산 시흥시의 열악한 환경 개선·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